

## 바울서신의 ‘속죄’와 ‘화해’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ἰ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ῆ의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

김서준\*

“주석은 우리의 언어 수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해의 변화에 대항하는 싸움이다(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109를 자유롭게 인용함)”<sup>1)</sup>

### 1. 서론

“속죄”와 “화해(화목)”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 혹은 결과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곳은 바울서신, 요한1서, 히브리서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속죄”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ὑπὲρ ἁμαρτιῶν, περὶ ἁμαρτιῶν(혹은 ἁμαρτίας), ἰλαστήριον, λύτρωσις와 같은 다양한 그리스어 표현의 번역어로 사용되며, “화해(화목)”는 ἰλασμός, ἰ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어군의 번역어로 사용된다.<sup>2)</sup> 바울서신에서 “속죄”와 “화해(화목)”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표현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aromaletter@live.co.kr](mailto:aromaletter@live.co.kr).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0S1A5B5A17090882).

- 1) C. Breytenbach, “‘Taufen’ als Metapher in den Briefen des Paulus, Randbemerkungen zur Wendung βαπτισθῆναι εἰς τι/τινα”, J. Flebbe and M. Konradt, hrsg., *Ethos und Theologie im Neuen Testament: Festschrift für Michael Wolt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6), 263에서 재인용.
- 2) 우리말 신약성경에서의 “속죄”, “화해”, “화목”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 부록의 <표 1 우리말 신약성경에서의 “속죄” 용어 사용>과 <표 2 우리말 신약성경에서의 “화해(화목)” 용어 사용>을 참조하라. 세 가지 우리말 단어들에 대항하는 그리스어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은 그리스어 표현에 다양한 한국어 번역이 사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같은 한국어 말에 서로 다른 그리스어 표현들이 대응하기도 한다. 히브리서의 ὑπὲρ ἁμαρτιῶν, περὶ ἁμαρτιῶν(혹은 ἁμαρτίας), λύτρωσις가 “속죄” 혹은 “속죄제”로 번역되는 것이

은 로마서 3:25의 ἱλαστήριον, 로마서 5:10-11과 고린도후서 5:18-20에 나타나는 καταλλα-어군의 용어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서 3:25의 ἱλαστήριον을 『개역개정』은 “화목제물”로, 『새번역』은 “속죄제물”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개역개정』에 따라 ἱλαστήριον은 καταλλαγῆ의 유의어로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새번역』의 번역대로 ἱλαστήριον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가? 만약에 그리스어 ἱλαστήριον이 “속죄제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속죄”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sup>4)</sup> 바울이 예수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기 위해서 ἱ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어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sup>5)</sup> 그

---

합당한지, 요한1서의 ἱλασμός를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다음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 3) 영어 번역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번역, “expiation”, “mercy seat”, “atoning sacrifice(atonement)”, “propitiation”이 사용된다. 독일어 번역의 경우 “Versöhnung”, “Sühne” 혹은 “Ort der Gnade”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Weihegeschenk”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속죄”와 “화해”가 서로 혼용되는 것은 독일어권에서의 성경 번역과 해석에서 “Sühne”와 “Versöhnung”, 영어권에서의 성경 번역과 해석에서 “expiation”과 “reconciliation”, “propitiation”이 혼용되어 쓰이는 현상에 비교해 볼 수 있다. 각 개념 사이의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고펠트(L. Goppelt)와 피츠마이어(J. Fitzmyer)가 지적한 바 있다. L. Goppelt, “Versöhnung durch Christus”, *Christologie und Ethi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148 이하; J. Fitzmyer, “Reconciliation in Pauline Theology”, John L. McKenzie, James W. Flanagan, and Anita Weisbrod Robinson, eds., *No Famine in the Land: Studies in honor of John L. McKenzie* (Claremont: Montana Scholar Press, 1975), 158.
- 4) “속죄”라는 말은 기독교 신학, 교회의 설교, 교육이 현장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다. 독일 성서신학 연구에서 우리말 “속죄”에 해당하는 ‘Sühne’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있었다. 주된 핵심 논쟁은 과연 바울이 Sühne라는 말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고찰인데, 학자들은 바울은 Sühne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C. Breytenbach, “Versöhnung, Stellvertretung und Sühne, Semantische und traditions-geschichtliche Bemerkungen am Beispiel der paulinischen Briefe”, *New Testament Studies* 39 [1993], 66 이하; J. Schröter, “Sühne, Stellvertretung und Opfer”, Jörg Frey und Jens Schröter, hrsg., *Deutungen des Todes Jesu im Neuen Testament* [Tübingen: Mohr Siebeck, 2005], 51-72; M. Wolter, *Paulus, Ein Grundriss seiner Theolog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1], 102 이하). Sühne는 일반적으로 범람 용어로서 범죄로 일어난 손해, 불이익을 보상하거나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주로 제사를 통해서 신에게 자신의 죄와 불의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말의 ‘속죄’와 쓰임이 유사하다.
- 5) 성서해석자들의 번역, 해석들이 바울이 사용한 용어와 표현들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언어는 문화와 시대에 따른 독특한 사고의 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속죄, 화해, 구속 같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과연 바울의 본문에 근거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본문에서 그러한 개념들이 나타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바울이 사용한 용어와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가 다르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고대 문헌의 종교적인 표현을 너무나 빨리 우리의 언어로 대체함으로 고대

런데 성경 번역에서부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만나게 된다. 이 경우 번역은 이미 하나의 신학적 해석으로 그것을 읽는 신학자, 기독교인, 기타 독자들에게 전해진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때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핵심적인 두 단어 *ἵ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ῆ*의 의미를 이 단어들이 나타나는 고전 문헌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 바울서신 각 본문에서의 번역의 적합성 및 신학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 2. 바울서신의 *ἵ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άσσω*, *καταλλαγή*

### 2.1.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

#### 2.1.1. 로마서 3:25의 사용 문맥

바울서신에서 『개역개정』, 『새번역』을 통틀어 ‘속죄’라는 범주에서 번역된 단어는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이 유일하다.<sup>6)</sup> 『개역개정』을 놓고 보면, 이 단어를 “화목제물”로 번역했기 때문에, 바울서신에서 “속죄”라는 말은 아예 찾을 수가 없다. 『새번역』에서는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을 “속죄제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나마 단 한 번 “속죄”라는 표현을 접하게 된다.

*ἵλαστήριον*이 사용된 로마서 3:24-26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내에서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바울은 23절,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

그리스어(그것이 유대적인 표현이든, 일반 그리스 세계의 사상을 반영하든)의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ἵλαστήριον*, *καταλλάσσω*, *καταλλαγή* 외에도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ἁμαρτημάτων*(롬 3:25),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τέκρινεν τὴν ἁμαρτίαν ἐν τῇ σαρκί*(롬 8:3), *Χριστὸς ἡμᾶς ἐξηγόρασεν ἐκ τῆς κατάρας τοῦ νόμου γενόμενος ὑπὲρ ἡμῶν κατάρα*(갈 3:13), *τὸν μὴ γνόντα ἁμαρτίαν ὑπὲρ ἡμῶν ἁμαρτίαν ἐποίησεν*(고후 5:21)과 같은 표현들이 주석적으로 더 정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바울서신에는 위에서 살펴본, ‘죄를 덮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다’ 외에도 ‘죄를 정죄, 심판하다’(롬 8:3)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한다. 또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산 것’(갈 3:13)이라는 표현도 쓰며, 예수의 죽음을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로 만든 것’(고후 5:21)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들은 현대에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이해 및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6) 자세한 것은 부록의 <표 1 우리말 신약성경에서의 “속죄” 용어 사용> 참조.

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선언에 이어서 24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3:21-22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며,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의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구원의 길이다.

바울은 24-25절에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러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속량을 통해서”(διὰ τῆς ἀπολύτρωσ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라는 말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를 말하고 있다. ἀπολύτρωσις는 흔히 노예나 전쟁 포로를 다시 풀어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sup>7)</sup> 구약에서는 λύτρ-용어들이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생활에서 자유하게 한 사건을 가리키기도 한다(출 6:6; 13:15; 15:13; 신 7:8; 9:26; 시 48:9; 110:9; 129:7; 사 63:4; Ode 9:68 등). 로마서 3:24의 ἀπολύτρωσις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죄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한 사건을 가리킨다.<sup>8)</sup>

바울은 죄인의 속량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계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바울은 ὄν으로 앞의 그리스도 예수를 목적으로 받고, 이어서 προέθετο라는 동사 다음에 ἱλαστήριον이라는 두 번째 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꾸며주는 말을 적고 있다. προτίθημ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통상적인 ‘세우다’라는 번역을 따라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ἱλαστήριον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으로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ἱλαστήριο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 단어의 해석은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이 문장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에서 자명하다). 그렇다면 ἱλαστήριο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속죄소인가? 은혜의 보좌인가? 아니면 신의 진노를 억누르고 달래는 것인가? 아니면 봉헌 제물인가? 그리고, ἱλαστήριον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 εἰς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그리고,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ἁμαρτημάτων라는 표현들이 바울 이전의 어떤 전승과

7) *BAA*, ‘ἀπολύτρωσις’; *Spricq*, ‘ἀπολύτρωσις’ 항목 참조.

8) 신약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무엇으로부터의 풀려남, 자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롬 3:25와 연결되는 경우는 고전 1:30; 엡 1:7; 골 1:14; 히 9:15이다.

연관되는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보고자 한다.

### 2.1.2. 바울서신 외의 ἵλαστήριον 용례 관찰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어휘가 등장하는 고대의 문헌을 살펴보고, 이 어휘가 각각의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관찰을 토대로 우리는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sup>9)</sup> 이 과정에서 일반 그리스 문헌에서의 용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ἵλαστήριον의 칠십인역 용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일반 그리스 문헌 자료들은 대부분 짧은 비문들로 어휘의 사용 문맥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데 반해서, 칠십인역의 용례들은 다양한 문맥과 더불어 다양한 지시적 의미(referentielle Semantik)<sup>10)</sup>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칠십인역에서 ἵλαστήριον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ἡρῶν)를 번역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된다(칠십인역 출 25:17-22; 31:7; 35:12; 38:5, 7 이하; 레 16:2, 13-15; 민 7:89).<sup>11)</sup> 우리말로 된 성경들은 ἡρῶν을 “속죄소”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ἵλαστήριον에 대해서도 역시 “속죄소”라는 번역을 사용한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설명에 따르면 양쪽에 그룹의 형상이 덧붙여진 언약궤의 덮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여 말씀하시는 장소이다. 그리고, 아론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인해서 이 언약궤 덮개 위에, 그리고 앞에 뿌린다(레 16:15).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레위기 16장의 ἵλαστήριον을 별 의심 없이 ‘속죄’라는 범주에서 이해하며,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도 ἵλαστήριον을 “속죄제물”, “속죄수단”, “속죄

9) 슈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는 해석학 강의에서 현대 의미론, 사전학의 기초가 되는 언어 이론을 설교한다. 그는 이미 단어는 항상 다양한 문맥 가운데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전의 항목들은 단어의 개개 사용의 의미를 번역한 것뿐이라고 하며, 해석자들이 사전을 너무 일찍 사용하는 것을 경고한다. 플라톤 작품의 번역자로서 슈라이어마허는 해석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단어 사용의 각 용례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며, 경험적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도식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F. Schleiermacher, *Allgemeine Hermeneutik* (1809.10. 강의), Schleiermacher-Archiv 1/2 (Berlin: De Gruyter, 1985), 1217-1310 참조.

10) 현대 의미론에서 이야기하는 단어의 지시적 의미라는 개념은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 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ἵλαστήριον의 사전적 의미(lexikalische Semantik)와 ἵλαστήριον이 실제 문맥에서 가리키는 대상들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한다. 단어의 전체 용례를 관찰한 후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에서 드러나는 의미 범주를 정하고, 다음에 ἵλαστήρι온이 어떤 물체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필로(Philo) 또한 언약궤의 덮개를 칭할 때 ἵλαστήριον을 사용하고 있다(Cher. 25; Vit. Mos. 2,95.97; Fug. 101). 필로의 용례 중에는 ἐπίθεμα가 ἵλαστήριον을 설명하는 곳이 있다(Fug. 100; Vit. Mos. 2,95.97).

소”등으로 옮긴다.<sup>12)</sup>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옛 성소의 속죄소를 대체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서 3:25와 위에서 언급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본문 외에 ἵλαστήριον이 나타나는 다른 본문들에서도 ἵλαστήριον이 속죄를 의미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ἵλαστήριον이 사용되는 고대 문헌은 위에서 언급한 본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로마서 3:25에서 αἴμα가 등장한다고 해서 ἵλαστήριον을 레위기 16장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레위기 본문 외에도 ἵλαστήριον이 어떤 희생을 가리키며, αἴμα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본문이 있기 때문이다(4Ma 17:21-22). 마지막으로 과연 관사가 없이 사용된 ἵλαστήριον을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언약궤의 덮개, 속죄소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장 구조를 볼 때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은 앞의 목적어 ὄν(그리스도 예수)을 꾸며주는 술어적(prädikativ) 역할을 한다. 즉, προτίθημι의 목적어로 ὄν 외에 다른 대상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장 구조가 아니다. 설령 비유적인 의미에서 관사가 없는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을 레위기 16장의 ἵλαστήριον과 연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왜 하필이면 이 언약궤 덮개로

12)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7), 190 이하; J. Roloff, ““ἵλαστήριον””,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hrsg., *EWNT* (Stuttgart: Kohlhammer, 2011), 456; Hübner, “Sühne und Versöhnung. Anmerkungen zu einem umstrittenen Kapitel Biblischer Theologie”, Antje Labahn, Michael Labahn hrsg., *Biblische Theologie als Hermeneuti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126 이하; G. Barth, *Der Tod Jesu Christi im Verständnis des Neu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2), 39 이하; P. Stuhlmacher,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55-57; J.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3), 349 이하; A. J. Hultgren,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1), 147; U. Schnelle, *Paulus: Leben und Denken* (Berlin Boston: De Gruyter, 2014), 481 이하; W. Kraus, *Der Tod Jesu als Heiligtumsweihe: Eine Untersuchung zum Umfeld der Sühnevorstellung in Römer 3,25 – 26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150-157; M. Gaukesbrink, *Die Sühnetradition bei Paulus: Rezeption und theologischer Stellenwert* (Würzburg: Echter, 1999), 230 이하; T. Knöppler, *Sühne im Neuen Testament: Studien zum Urchristlichen Verständnis der Heilsbedeutung des Todes Jesu* (Neukirchen-Vluyn: Neukirchener-Verlag, 2001), 113 이하; B. Janowski, *Sühne als Heilsgeschehen: Tradi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Studien zur Sühnetheologie der Priesterschri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350 이하; R. Jewett, *Romans: A commentary* (Edinburgh: Fortress, 2007), 284 이하; M.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4), 256 이하; D. Moo, *The Letter to the Romans* (Michigan: Eerdmans, 2018), 252 이하; 차정식, 『로마서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54 이하; 장홍길, 『로마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4), 88 이하; 장동수, “로마서 3장 25절의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 『복음과 실천』 20 (1997), 110 이하.

표현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3:25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의 안에서 속죄소보다는 희생된 제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를 흘린 제물을 동시에 피가 뿌려지는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레위기 16장과 궤이 연결을 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언약궤 덮개보다는 제사에 드려지는 짐승과 유비적 관계를 찾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sup>13)</sup>

먼저 칠십인역 출애굽기 25:17-22; 31:7; 35:12; 38:5, 7 이하; 레위기 16:2, 13-15; 민수기 7:89의 ἱλαστήριον을 과연 ‘속죄’라는 의미적 범주에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칠십인역에서 ἱλαστήριον이 사용되는 에스겔 43:14, 17, 20; 창세기(Symmachus) 6:16; 아모스 9:1의 용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속죄’라는 우리말이 이 본문들에서 ἱλαστήριον이 보여주는 의미 영역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속죄’는 일반적으로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껴 없앴”을 의미하며,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말하는데,<sup>14)</sup> 이러한 속죄의 의미는 칠십인역의 여타 본문들에서 찾기 어렵고, 언약궤 덮개를 통상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가 요청된다.

우선 에스겔 43:14, 17, 20을 보면, 이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설계와 연관이 있다. 그 중에서 ἱλαστήριον이 등장하는 부분은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설명하는 단락이다. 여기서 ἱλαστήριον은 히브리어  $\text{קַרְטָפִים}$ 의 번역어로 쓰이며, 번제단의 아랫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싸는(혹은 막는) 곳을 지칭한다. 학자들은 에스겔서의 ἱλαστήριον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번제단은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 있고, 그 곳에서는 번제와 피를 뿌리는 속죄 의식이 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는 뜻을 가진 ἱλαστήριον이 쓰였다.<sup>15)</sup> 과연 이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가? ἱλαστήριον은 결코 번제단

13) E. Lohse, *Martyrer und Gottesknecht: Untersuchungen zur urchristlichen Verkündigung vom Sühntod Jesu Christi* (Forschungen zur Religion und Literatur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4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5), 152 참조. K. Wengst, *Christologische Formeln und Lieder des Urchristentums* (Studien zum Neuen Testament) (Gütersloh: Mohn, 1973), 83; Barth, *Der Tod Jesu Christi im Verständnis des Neuen Testaments*, 39 이하; W. Schrage, “Römer 3, 21-26 und die Bedeutung des Todes Jesu Christi”, P. Rieger, hrsg., *Das Kreuz Jesu*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78; Schnelle, *Paulus*, 508, 등 많은 주석가들이 로제(E. Lohse)의 의견을 따른다. 이 외에도 레 16장의 대속죄일의 묘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피가 주로 속죄소 동편, 앞 등 속죄소 주위에 뿌려진다는 점이다.

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속죄”, <https://stdict.korean.go.kr> (2020. 7. 25.).

전체를 지시하지 않으며, 번제단의 아랫단 일부를 가리킨다. 그리고, 번제단의 일부분인 밀받침 부분에서 특별히 속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ἱλαστήριον이 번제단을 덮고 있는 일부분, 제단을 감싸는 밀받침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볼 때, ἱλαστήριον이 ‘덮는 것, 막는 것, 감싸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eta\rho\upsilon\sigma$ 의 번역어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그리스어 구약의 한 판본인 심마쿠스(Symmachus)역 창세기 6:15-16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거기에 보면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 $\tau\acute{\alpha}\nu\kappa\iota$ )를 ἱλαστήριον이라 부르고 있다. 이 사용 용례를 학자들은 대체로 잘못된 번역, 이해할 수 없는 번역으로 평가한다.<sup>16)</sup> 일부 학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이기 때문에 번역자가 ἱλαστήριο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sup>17)</sup>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은 다른 구약의 용례를 지속적으로 속죄의 장소, 속죄의 도구로서 이해한다. 그런데 창세기 6:16과 관련해서는 속죄의 장소가 아니라 갑자기 은혜의 처소라는 말을 쓰고 있다. 노아의 방주를 속죄의 처소라고 부르기에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기 때문일 것이다. 창세기 6:16의 용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  $\text{כָּפַר}$ 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동사는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 사이를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등장한다( $\text{וַיִּכְרַם אֱלֹהִים אֶת-הַתַּיִת וְאֶת-הַכִּנֹּף וְאֶת-הַמִּצְרֵי הַתַּיִת בַּחֲבֵרִים}$ ). 방주는 나무로 된 큰 집과 같고, 역청으로 견고하게 칠해진 방주는 사람과 짐승을 물로부터 보호한다. 칠십인역 번역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막고 감싸는 기능을 하는 언약궤 덮개, 곧 출애굽기 및 레위기에 빈번히 등장하는  $\text{כַּפָּרִית}$ , 또는 에스겔에 나오는 번제단 밀받침  $\text{הַרְוֵץ}$  등을 ἱλαστήριον으로 번역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6:16의 ἱλαστήριον도 잘못된 번역으로 보기보다는 방주가 물을 막아 사람들과 동물들을 보호하는 거대한 상자( $\kappa\iota\beta\omega\tau\acute{o}\varsigma$ )이기 때문에 ἱλαστήριον으로 번역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18)</sup>

15) Deißmann, “ἸΛΑΣΤΗΡΙΟΣ und ἸΛΑΣΤΗΡΙΟΝ: Eine lexikalische Studie”,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4 (1903), 196; Kraus, *Der Tod Jesu als Heiligtumsweihe*, 61, 154 이하; T. Schumacher, *Zur Entstehung christlicher Sprache: Eine Untersuchung der paulinischen Idiomatik und der Verwendung des Begriffes πίστις*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340 이하.

16) S. Schreiber, “Das Weihegeschenk Gottes: Eine Deutung des Todes Jesu in Röm 3,25”,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97 (2006), 94, 각주 24;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256.

17) Deißmann, “ἸΛΑΣΤΗΡΙΟΣ und ἸΛΑΣΤΗΡΙΟΝ”, 196; T. W. Manson, “ἸΛΑΣΤΗΡΙΟΝ”,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46 (1945), 4. 성서학자들은 가끔씩 너무나 성급하게 한 단어의 사용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단어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그 단어의 사용 문맥에서, 다른 표현들과 맺고 있는 언어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8)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스어 어휘가 어울리지 않을 경우 성급하게 오역이나 이해할 수 없는

ἱλαστήριον이 덮고 감싸는 물체를 지시하는 용례가 칠십인역 아모스 9:1 에도 등장한다. 아모스 9:1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성전의 파괴를 명령 하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성전의 기둥 맨 윗부분을 쳐서 성 전이 무너지게 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 본문에서 ἱλαστήριον은 망치로 쳐야 할 성전 기둥의 맨 윗부분을 가리킨다. 마소라 본문에는  $\text{רִיחַבֵּן}$ 로 쓰여 있는 데, 이 단어는 흔히 기둥의 머리 부분으로 기둥 끝을 덮는 부분이다. 아모스 9:1의 ἱλαστήριον 역시 학자들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평가하거나<sup>19)</sup> 아니면 성전 기둥이 희생제사가 일어나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ἱλαστήριον이 사 용된 것이라 해석한다.<sup>20)</sup> 이런 설명 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에스겔 43장의 ἱλαστήριον 용법을 설명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잘 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스 9:1의 ἱλαστήριον은 성전의 핵심 기구나 속죄 의 장소가 아니라 단지 기둥의 맨 위 일부분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성전 기둥의 맨 윗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제의적으로 속죄와 관련되는지 이 해하기 어렵다. 속제제의와 연결시키는 설명보다는 ἱλαστήριον의 의미가 어떤 것을 ‘덮는 것’, ‘감싸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번역자가 기둥 맨 윗 부분을 감싸는 부분인  $\text{רִיחַבֵּן}$ 를 ἱλαστήριον으로 번역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칠십인역의 용례들을 정리하자면 ἱλαστήριον은 항상 무엇인가를 덮거나 막는,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여기에서 우리 는 ἱλαστήριον의 사전적 의미(lexikalische Semantik)를 ‘덮는 것’, ‘감싸는 것’, ‘막는 것’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ἱλαστήριον의 지시 대상은 언약궤의 덮개, 번제단의 감싸는 부분, 기둥의 윗머리를 감싸는 부분, 또 방 주까지 아주 다양하다. 반드시 성소의 속죄 의식과 관련된 기구를 지칭하 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ἱλαστήριον을 속죄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위 에서 살펴본 여러 용례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제 성경 외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리스 문헌의 ἱλαστήριον의 용례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이 단어가 발견된 곳은 다음과 같다: Cos Nr. 80; Cos Nr. 347; *Bullettino del Museo dell'Impero Romano* Nr. 11; SEG LIV 796;

---

번역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당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단어들의 실제 사용자이며, 시기적으로 그 언어들에 친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요구된다. ἱλαστήριον의 경우 칠십인역 번역자들의 언어 능력을 일단 신뢰하는 것이 바른 접근 방법이다.

19) L. Morris, “Meaning of ἱλαστήριον in Romans 3:25”, *New Testament Studies* 2 (1955), 36; Knöppler, *Sühne im Neuen Testament*, 37, 각주 180; Schreiber, “Das Weihegeschenk Gottes”, 94;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256.

20) Kraus, *Der Tod Jesu als Heiligtumsweihe*, 24, 154.

Lindos 2. Inschriften, Nr. 425; Tempelchronik von Lindos B 49, Z. 48-50; Dio Chrysostomus, Or. 11,121; Aelius Herodianus et Pseudo-Herodianus, Gramm., Rhet.; P. Fay, Nr. 337. 이 중에 마지막 두 개의 본문은 문맥이 드러나지 않아서 ἱλαστήριον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다른 비문이나 문헌에서 ἱλαστήριον은 신에게 드려진 어떤 기념비, 입상, 주춧돌, 잔 등을 가리킨다. 몇 개의 예만 들면 다음과 같다:<sup>21)</sup>

백성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카이저의 구원을 위해서 신들께 (이것을) ἱλαστήριον으로 (바친다)(Cos Nr. 80).

할라사나의 백성이 아타로스의 아들, 테우다모스를 위해서 아폴론에게 (이것을) ἱλαστήριον으로 (바친다)(SEV LIV 769).

가장 높은 신께 린도스의 아테네 여신의 사제, 제우스의 사제, 트라실로코스 모이라게네우스와 린도스의 거주민들이 (이것을) ἱλαστήριον으로 (바친다)(Lindos 2. Nr. 425).

위에 인용한 비문의 글과 함께 세워진 비석은 어떤 사람이나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신에게 드려진 ἱλαστήριον으로 인해서 질병, 재앙,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불행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대 자료들을 바탕으로 ἱλαστήριον의 의미를 ‘신을 달랠’, ‘신의 진노를 억누름’으로 파악한다(영어로는 propitiation; 독일어로는 gnädig stimmen).<sup>22)</sup> 그리고, 로마서 3:25의 ἱλαστήριον도 이런 그리스, 로마 세계의 배경 아래서 이해하려고 한다.<sup>23)</sup> 문제는 위에서

21) 위의 인용문 외의 본문과 자료의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Schreiber, “Das Weihegeschenk Gottes”, 100-101; A. Weiß, “Christus Jesus als Weihegeschenk oder Sühnemal?”,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5:2 (2014), 296-298을 참조.

22) 슈라이버(S. Schreiber)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비문이나 문헌들에 나타나는 ἱλαστήριον을 Weihegeschenk, 즉 봉헌물로 이해하고자 한다. Schreiber, “Das Weihegeschenk Gottes”, 100 이하.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고대 그리스어 문헌에서 신에게 드려진 봉헌물은 주로 ἀνάθεμα로 지칭된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세계에서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신들에게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Dio Chrysostomus, Or. 11,121을 살펴보면 본문에 이미 ἀνάθεμα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로써 뒤에 나오는 ἱλαστήριον이 ἀνάθεμα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Morris, “Meaning of ἱλαστήριον in Romans 3:25”, 33 이하; Schreiber, “Das Weihegeschenk Gottes”, 100 이하; 김철홍, “성서적 신학의 주제로서의 속죄”, 장홍길 편, 『성서적 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약신학의 주요주제』(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2), 226 이하.

살펴본 칠십인역의 본문들에는 ‘달램’, ‘억누름’이라는 의미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 *ἰλαστήριον*의 단어 연구의 결과는 칠십인역 본문에 관련해서는 ‘속죄(소)’로,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헌과 관련해서는 ‘달램’, ‘억누름’으로 각기 따로 정리가 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ἰλαστήριον*의 의미를 여전히 미궁 속에 남겨 두는 것과 같다.<sup>24)</sup> 필자는 칠십인역의 다양한 본문들에서 얻게 된 의미, ‘덮는 것’, ‘감싸는 것’, ‘막는 것’이 *ἰλαστήριον*의 그리스문헌의 용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전쟁이나 질병,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 가운데 나라나 개인의 안전, 보호를 바라면서 신적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봉헌한 것을 *ἰλαστήριον*이라고 지칭한 것은 그것이 신적 진노를 덮어서(혹은 감싸서)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의 유대고대사 16.182는 필자의 해석을 지지해 주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헤롯 대왕이 다윗의 무덤을 열고 도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무덤을 열자 불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나머지 흰 돌로 된 비싼 *ἰλαστήριον*을 입구에 둘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헤롯이 세운 기념비는 죄를 속하거나 없애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을 신적 진노로부터 지켜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sup>25)</sup>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은 마카베오4서 17:21-22이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서 3:25의 내용과 유사하다. 우선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죽음의 의미가 *ἰλαστήριον*으로 표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본문 모두 피(αἷμα)라는 단어가 나타난다.<sup>26)</sup> 하지만 로마서 3:25와 마카베오 본문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마카베오 본문에 따르면 신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당사자들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ἰλαστήριον*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로마서 3:25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ἰλαστήριον*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영향력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한 것이다.

24) 근래에는 어떤 한 가지 입장을 택하지 않고, ‘속죄’, ‘화해’, ‘달램’, ‘억누름’, ‘은혜의 보좌’ 중에 몇 가지 입장을 조합하거나 명확히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단지 나열하는 설명들도 보인다.

25) Kraus, *Der Tod Jesu als Heiligtumsweihe*, 26 이하, 40.

26) 마카베오 본문은 롬 3:25의 *ἰλαστήριον*의 사용을 ‘피’라는 단어 때문에 반드시 레위기의 제의와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2.1.3. 로마서 3:24-26에서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 연구에서 이 단어가 ‘속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진노를 달랠’, ‘억제함’이라는 의미 규정도 고대 문헌의 다양한 해당 본문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개역』과 『개역개정』의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은 아마도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생각한 번역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목’이라는 말은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필자는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를 ‘덮는 것’, ‘막는 것’, ‘감싸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간의 죄, 혹은 죄인이라는 입장이 ἵλαστήριον의 목적어가 되면 ἵλαστήριον은 ‘죄를 덮는 제물’, 혹은 ‘죄인을 덮어 보호하는 제물’을 의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상의 목적어를 죄가 아닌, 신의 진노로 봐서 ‘신의 진노를 막고 상쇄하는 제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의 진노를 막는다는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일반 그리스 세계에서 용례에서 거듭 확인되지만, 유월절 전승과 언약궤를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상은 구약에서도 발견된다.<sup>27)</sup> 즉 죄인인 인간이 신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ἵλαστήριον이 필요하다는 사상은 그리스와 유대 전통 모두에 공통되는 사상이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자주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언급한다는 점은 ἵλαστήριον의 목적어가 하나님의 진노일 가능성을 지지한다(롬 1:18; 2:5, 8; 4:15; 5:9; 살전 1:10; 2:16; 5:9 등).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구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를 덮고, 신의 진노를 막는 효력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예수의 죽음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서 ἵλαστήριον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 효력의 수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의 형식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로마서 5:9에 의하

27) 예를 들어 삼하 6:1-11의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레 16장의 지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행위,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레 10:1-2 참조). 이 외에도 출 19장에도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전에 진노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

28) αἷμα가 단지 죽음의 폭력적 성격을 말한다는 의견(예를 들어 K. Haacker, *Der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105 이하; C. Eschner, *Gestorben und hingegeben „für“ die Sünder, Bd. 1: Auslegung der paulinischen*

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이다(δικαιωθέντες νῦν ἐν τῷ αἵματι αὐτοῦ). 다수의 학자들은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를 앞 구절 προέθετο ὁ θεὸς ἰλαστήριον에 연결하여 해석한다. 즉 ‘피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라는 도구적 의미를 가진 이중적인 표현을 서로 분리하여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두 표현을 한 문장 안에서 조화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를 προέθετο ὁ θεὸς ἰλαστήριον에 연결시키려는 해석은, 왜 바울이 하필이면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를 προέθετο ὁ θεὸς ἰλαστήριον과 떨어뜨려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시켰는지 설명해야 한다. 문장의 구조로 볼 때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와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를 연결해서 함께 ‘피에 대한 믿음, 혹은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πίστις와 ἐν의 연결은 빈번히 발견된다(고전 2:5; 갈 3:26; 엡 1:15; 골 1:4; 딤후 3:13; 딤후 3:15; 막 1:15; 시 105:12; Sir 32:21).<sup>29)</sup>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와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를 연결해서 보는 해석은 아래에서 다룰 전승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ἰλαστήριον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전승과 연관된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본문의 ἰλαστήριον, πίστις, αἷμα의 연결, 그리고 πάρεσις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ἁμαρτημάτων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피가 가진 의미를 생각할 때 구약의 제의들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의를 바울은 염두에 둔 것일까? 위에서 언급한 본문의 표현들을 유념할 때 로마서 3:25의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의 묘사와 매우 유사하다.

우선 유월절 사건을 설명하는 본문에서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פָּסַח의 번역으로 그리스어 σκεπάζω(13, 27절), παρέρχομαι(23절)가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sup>30)</sup> παρέρχομαι는 유월절 전승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데, 이것은 로마서 3:25의 πάρεσις의 의미와 유사하다. πάρεσις 역시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 잘못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뜻하며, ἄφεσις와는 구별되는 단어이다(Xenophon, Hipparch. 7.10; Dionysius v. Halicarnass, Ant. Rom. 2.35.4; 7.37.2; Josephus, Ant. 15.48; Sir 23.2).<sup>31)</sup> 즉, 바울은 예수의 피를 믿는

*Formulierung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36 이하)에 반대.

29) Haacker, *Der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108 참조.

30) 필로는 유월절에 대해서 διάβασις를 사용하여 설명하며,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ὑπέρβασις를 사용한다.

31)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260 이하; Kraus, *Der Tod Jesu als Heiligtumsweihe*, 100 이

믿음이 가져오는 구원을 유월절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죄들을 보지 않고, 심판이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한다.<sup>32)</sup> 또 출애굽기 12:13, 27절에 사용된 *σκεπάζω*는 ‘덮다’, ‘보호하다’ 등을 뜻하며,<sup>33)</sup> 하나님 이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집을 보호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동사의 사용은 의미상으로 로마서 3:25의 *ἱλαστήριον*에 연결될 수 있다.<sup>34)</sup>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예수의 흘린 피를 신뢰하는 자들은(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다. 로마서 3:25의 *ἱλαστήριον*은 이러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효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7의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희생”(πάσχα)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죄를 덮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는 제물’이라고 할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 구속함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며, 그들의 지난 죄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할 때,<sup>35)</sup> 유월절 희생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우선 유월절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해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

하; Moo, *The Letter to the Romans*, 259 이하 참조. *πάρεσις*는 결코, 죄 용서, 죄 사함에 사용되는 *ἄφεσις*의 유의어가 아니다(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I*, 196; Stuhlmacher, *Der Brief an die Römer*, 58; E. Lohse,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135 이하; D. Zeller, “Gottes Gerechtigkeit und die Sühne im Blut Christi: Neuerlicher Versuch zu Röm 3,21-26”, *Unterwegs mit Paulus* [Regensburg: Pustet, 2006], 64에 반대.). 바울은 롬 4:7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ἀφίμη*를 사용할 뿐 *ἄφεσις*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을 표현하는 주된 개념이 아니다.

32) 26절의 *ἐν τῇ ἀνοχη τοῦ θεοῦ*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연기하거나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3) BAA, “*σκεπάζω*”, *LSJ*, “*σκεπάζω*” 참조.

34) 사 51:16에도 *σκεπάζει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덮어 보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35) 롬 3:25의 지난 죄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26절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내용과 병행을 이루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죄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서로 다른 행위를 나타내지만 서로 그 내용을 보완하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준다. 바울은 롬 4:6-8에서도 ‘의롭다 함’이라는 표현을 ‘죄를 사함’, ‘죄를 덮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이라는 표현들과 병행시키고 있다. 비슷한 병행은 고후 5:19, 21에도 발견된다(*μη λογίζομενος αὐτοῖς τὰ παραπτώματα αὐτῶν*과 *γενόμεθα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의 병행). 25절의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ἁμαρτημάτων*가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며, 26절의 칭의가 이방인의 믿음의 구원을 뜻한다는 주장(예를 들어 E. Käsemann, *An die Römer* [Tübingen: Mohr Siebeck, 1980], 93 이하; J. Flebbe, *Solus Deus: Untersuchungen zur Rede von Gott im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Berlin: De Gruyter, 2010], 113f; Lohse, *Der Brief an die Römer*, 136에 반대.).

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다. 그리고 유월절 희생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며 시간적으로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이기에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는 사건이다.

## 2.2. 고린도후서 5:18-20과 로마서 5:10-11의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

### 2.2.1. 고린도후서 5:18-20, 로마서 5:10-11의 문맥

바울서신에서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가 나타나는 곳은 고린도후서 5:18-20, 로마서 5:10-11, 그리고 로마서 11:15가 있다. 이 중에 로마서 11:15는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죄인의 구원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예수의 죽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사용되는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고린도후서 5:18-20, 로마서 5:10-11의 사용 문맥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린도후서 5:18-20에 등장하는 καταλλαγή라는 주제는 넓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 변호와 관련되어 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당한 고난을 먼저 이야기한다. 바울의 처지는 마치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질그릇과 같다. 그는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길 원한다는 신념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4:7 이하). 현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의 미래는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4:16 이하).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사도로서의 진실한 섬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한다(5:8 이하). 고린도후서 5:14 이하의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위에서 다룬 로마서 3:21-26만큼이나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말하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후 5:14 이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일어난 구원이 무엇보다 삶의 새로운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의 변화에 있다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5:18부터 등장하는 καταλλαγή 용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21절의 δικαιοσύνη 용어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낸다.<sup>36)</sup> 바울은 자신이 이

36) 고후 5:21의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김봉습, “고린도전서 1:30의 해석

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 화해의 말씀(λόγος τῆς καταλλαγῆς)을 말았음을 확신한다.

고린도후서 5:18 이하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울은 로마서 5:9-11에서 δικαι-용어와 καταλλα-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했지만 로마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이 로마서 5:10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롬 8:32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사랑의 확증의 사건, 즉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로마서 5:9-10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미래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9절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의로움(δικαιοθέντες), 10절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화해(κατηλλάγημεν)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 2.2.2. 바울서신 외의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 용례 관찰

성경 본문 외에 일반 그리스어 문헌에서 καταλλάσσω<sup>37)</sup>와 καταλλαγή<sup>38)</sup>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문맥은 갈등이나 전쟁 상태에 있던 두 그룹 혹은 국가가 다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할 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용례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문들이 있다: Herodot, 5.29, 95; 6.108; 7.145; Xenophon, An 1.6.1; VII 6.5; Plato, Resp. 8.566e; Cassius Dio Coccianus, 38.5.5; 48.31.2; 44.34.4; 46.52.3; Dio Chrysostomus, 38.9; 38.11; 38.48f. 그룹이나 국가 사이의 관계 외에도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는 흔히 가족 구성원, 남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Euripides, IphAul 1158; Med 898; Xenophon, An 7.6.5; Demosthenes, Cont. Boeo. 23; Dio

에 대한 소고 - 구문이해 및 바울서신의 관련구절 분석을 중심으로 -, 「신약논단」 26:4 (2019), 1100 이하 참조.

37) 그리스, 로마 시대 문헌에는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 외에 διαλλάττω, καταλλάττω도 자주 사용된다. 주로 -ττω 형태가 그리스 시대 전기에 쓰인다면 -σσω 형태는 로마 시대 문헌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문헌에서 διαλλάσσω가 καταλλάσσω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C. Breytenbach, *Versöhnung: Eine Studie zur paulinischen Soteriologie* [Neukirchen-Vluy: Neukirchener Verlag, 1989], 45 이하 참조). 본 논문에서는 바울서신에서 사용된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만 다룬다. 나머지 어휘들에 대해서는 Breytenbach, *Versöhnung*, 45-104 참조.

Chrysostomus, 38.21; Cassius Dio Coccianus, 1.5.6.

우선 일반 그리스어 본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가 *ἵλασ-*어휘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뜻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ἵλασ-*어휘들이 무엇을 덮거나 막는 혹은 감싸는 것을 의미하며, 제의적 상황에서는 신의 진노나 죄를 덮어 상쇄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가 자주 사용되는 문맥은 제의가 아니며, 주로 두 집단, 두 국가 사이, 개인들 사이의 적대적인 상황이 해소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사용하는 단어 ‘화해’와 ‘화목’중에 어떤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원만한 관계, 정다움을 나타내는 ‘화목’보다는 갈등과 대결하는 상황이 종식되는 것을 뜻하는 ‘화해’가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에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유대 문헌에서는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전쟁과 갈등 관계에 있던 개인, 그룹, 나라가 평화를 지칭하는 용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Philo, Abr 214; Virt 117f.; 153f.; LegGai 205; Jos 237, 240, 262, 265; Josephus, Ant 7.184; 14.278. 그리고,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경우들도 발견된다: Josephus, Ant 5.138; 6.353; 11.195. 하지만 유대 문헌에서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는 일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헌과는 다르게 신과 인간 사이의 종교적인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sup>39)</sup> 예를 들어 요세푸스의 Ant 6.143에서 *καταλλάσσω*는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화해를 표현하고 있다.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간구하는 대목에서 τὸν θεὸν καταλλάττεσθαι τῷ Σαούλῳ 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화해를 베푸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 대상은 사울이다. 칠십인역 마카베오2서에서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리킨다.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기도문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과 화해하기를 간구한다(2마카 1:5: ἐπακούσαι ὑμῶν τῶν δεήσεων καὶ καταλλαγεῖη ὑμῖν). 이어서 5:20에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화해 가운데서(ἐν τῇ τοῦ μεγάλου δεσπότου καταλλαγῇ) 성전의 영광이 회복된다고 말한다.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며, 그 회복은

3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화해”, “화목”, <https://stdict.korean.go.kr> (2020. 7. 25.).

39) Sophokles, Ai. 744; Plato, Symp. 193; Diodor V 68.2에서도 *καταλλάσσω*, *διαλλάσσω*가 신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인간 사이의 화해를 나타내는 용례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경우이다. 이미 신과 인간 사이의 화해 개념이 그리스 세계에서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화해의 복음을 이방인 신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해를 베푸는 것이다(5:20). 유대 젊은이들은 용감하게 순교를 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끝이 나고, 화해의 순간이 오리라 고백한다(7:33): *πάλιν καταλλαγῆσεται τοῖς ἑαυτοῦ δούλοις*. 마카베오 2서에서 “화해”라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8:29 참조).

이상 살펴본 유대 문헌에서의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개인, 나라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적 관계의 이유라는 점, 이런 적대적 관계에서 진노의 심판이 전제되어있다는 점에서 바울서신과 살펴본 유대 문헌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sup>40)</sup>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화해는 인간의 어떤 선행적인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sup>41)</sup> 유대 문헌에서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화해의 목적어가 된다.<sup>42)</sup> 바울에게 있어서 화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행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화해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해의 사건은 인간에게 하나의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으로 전해진다.

### 2.2.3. 고린도후서 5:18-20과 로마서 5:10-11의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의 의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τὰ δὲ πάντα ἐκ τοῦ θεοῦ)는 말에서 ‘모든 것’(τὰ πάντα)은 5:14 이하에서 설명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말한다. ἐκ τοῦ θεοῦ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sup>43)</sup> 이전에는 자신을 위한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삶,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사랑을 아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ἐκ τοῦ θεοῦ에 이어지는 두 개의 분사 구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계속되는 설명이다. 첫 번째 분사 구문은 하나님

40) 일반 그리스, 로마 시대 문헌의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의 용례보다는 유대 문헌의 사용법이 바울의 용례에 더 가깝다.

41) I. H. Marshall,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Robert A. Guelich, ed., *Unity and Diversity in New Testament Theology: Essay in Honor of George E. Ladd* (Grand Rapids: Eerdmans, 1978), 129 참조.

42) Breytenbach, *Versöhnung*, 79 이하 참조.

43) 고전 1:30의 ἐξ αὐτοῦ의 용례는 고후 5:18의 ἐκ τοῦ θεοῦ와 매우 유사하다.

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한 사건을 언급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서신의 수신자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바울, 그리고, 서신의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이다. 여기에서 *διὰ Χριστοῦ*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롬 5:10 참조).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고후 5:14, 21; 롬 3:25; 5:9).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토대로 자신과 인간 사이의 대적 관계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해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화해의 직분(*διακονία τῆς καταλλαγῆς*)을 맡기셨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해를 전하는 일로 이해한다. 고린도후서 5:19의 화해의 말씀(*λόγος τῆς καταλλαγῆς*)을 맡았다는 말과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sup>44)</sup> 바울은 고린도후서 3:8-9에서 자신의 직분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 칭한 바 있다. 심판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 율법을 전한 모세에 비교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은 믿음을 통한 의, 칭의를 전하는 것이며, 생명을 전하는 직분임을 말한다.<sup>45)</sup> 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화해의 직분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소개하는지는 본문의 문맥에서 명확하다. 바울에게 있어서 화해를 전하는 복음과 그의 화해를 전하는 사신으로서의 사도직은 분리될 수 없다.

19절에 이어지는 말들은 앞 절에 등장한 두 개의 분사 구문의 내용을 반복 및 확장하고 있다.<sup>46)</sup> 18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교회의 수신자들을 화해의 대상으로 언급했지만 19절에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화해의 대상으로 언급한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에는 14절에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가 된 모든 사람들, 즉 화해의 대상자로서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θεὸς ἦν ἐν Χριστῷ*가 미완료로서 하나님과 세상

44) *Υπὲρ Χριστοῦ*(고후 5:20)는 ‘그리스도를 위한’이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V. P. Furnish, 2 *Corinthia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5], 339), 일반적으로 많은 주석, 번역들은 그리스도를 대리(대신)하는 의미로 이해한다. M.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3), 446 참조. *πρεσβεύς*(고후 5:20)가 화해를 위해서 보내지는 사신으로 사용되는 본문들에 대해서는 Breytenbach, *Versöhnung*, 46 이하 참조.

45) 이외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전 4:1; 고후 4:7 참조).

46) T. Schmell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10), 331 참조.

의 화해를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서술한다는 점이다.<sup>47)</sup> 하지만 여전히 전체 문장 형식은 하나님이 화해 사건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화해의 일은 죄인 된 인간이 그 화해의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완성된다.<sup>48)</sup> 그렇기에 20절의 “화해하라”라는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화해의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신의 의무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신이 없을 때, 화해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롬 10:14 이하 참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신이 화해의 소식을 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가능한 것이다.

로마서 5:10-11에서 καταλλάσσω와 καταλλαγή의 사용은 바울의 사도직 변 호나 화해의 요청과는 거리가 멀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일어난 구원 사건을 묘사하는 데 이 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일어난 하나님과의 화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sup>49)</sup>

로마서 본문에서도 고린도후서 5:18-21에서와 같이 καταλλα-용어와 δικαι-용어가 나란히 사용된다. 바울은 로마서 5:9의 의롭게 됨에 이어서 하나님과 화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10절에 쓰고 있다. 이 화해라는 개념은 9절의 의롭게 됨을 단순히 보충하는 말이 아니다. 이 두 개념은 그렇다고 유의어도 아니다. 이 두 개념은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구원을 서로 다른 의미 영역에서 설명한다. 의롭게 됨이 믿는 자들의 신분의 변화를 법정적인 배경으로 설명한다면, 화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기술한다. 이 변화의 내용은 10절의 ει 이하에서 이전과 이후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로 설명된다. 바로 하나님과 적, 원수

47) ἦν은 καταλλάσσω와 연결하여 coniugatio periphrastica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다. λογίζομενος는 앞에 분사 ἦν에 대응한, 또 다른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분사이다. O. Hofius, “Erwägungen Zur Gestalt und Herkunft des paulinischen Versöhnungsgedankens”,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77 (1980), 187; Breytenbach, *Versöhnung*, 110 이하; R. Bieringer, “2 Kor 5,19a Und Die Versöhnung der Welt”,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63 (1987), 312; Schmell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331 이하.

48) Breytenbach, *Versöhnung*, 135 이하; Harris, *2 Corinthians*, 438 이하 참조.

49) 롬 5:9-10에 사용된 수사적 기법은 πολλῶ … μᾶλλον이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πολλῶ … μᾶλλον이라는 표현은 롬 5:15, 17; 고후 3:9, 11; 빌 2:12(롬 11:12, 24도 참고)에도 등장한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333이하 참조). 보통 이 표현은 큰 것에서 시작하여 작은 일의 확실성을 표현할 때 쓴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바울 서신만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작은 사건인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 롬 5:9-10의 경우 확실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로부터 미래의 일로 논지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였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해로의 변화이다.

바울은 로마서 5:10에서 화해의 사건을 수동형 *κατηλλάγημεν*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이 화해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원수 된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있던 적대적 관계, 불화를 제거한 사건이다.<sup>50)</sup>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10-11절에 세 번 반복되는 *καταλλα*-용어는 1절의 *εἰρήνη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θεόν*과 평행을 이룬다.<sup>51)</sup>

화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로 칭할 수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여기서 로마서 5:10에서 *ἐχθροί*라는 표현이 5:6, 8의 *ἄσεβής, ἁμαρτωλός*에 나란히 쓰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후 5:19의 *παρὰπτώματα*도 참조).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존재를 *ἐχθρός*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8:7-8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임을 말해준다.<sup>52)</sup>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롬 1:18 이하; 롬 5:9). 바울에게 있어서 화해라는 것은 이러한 죄와 불의 때문에 적대적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διὰ τοῦ θανάτου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끝나고,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이 화해의 사건이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이며, 현재의 고난에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이다(5:11).<sup>53)</sup>

50) R. Bultmann,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160; Otfried Hofius, "Erwägungen Zur Gestalt und Herkunft des paulinischen Versöhnungsgedankens" 189 이하.

51) 롬 5:1-11은 크게 보면 의와 화평이라는 개념이 시작과 끝 부분에서 감싸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의', '화해', '평화'라는 사상을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δικαιοῦν, εἰρήνη*의 사용,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해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사 53장을 그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롬 5:16 이하; 고후 5:21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사상도 사 53장을 생각나게 한다.

52) R. Bultmann,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160 참조. 육신을 따른 생각, 자랑, 판단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믿음의 삶에 반대되는 삶을 표현하는 중심 개념이다 (갈 5:16 이하; 빌 3:1 이하; 롬 8:3 이하 참조.).

### 3. 결론

이상 바울서신에 사용된 ‘속죄’와 ‘화해(화목)’ 용어의 번역의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하는 그리스어 표현들, *ἵ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았다. 고전 문헌들의 용례 분석을 바탕으로 이 두 단어군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았고, 이어서 두 단어군이 바울서신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로 사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바울서신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로마서 3:25의 *ἵλαστήριον*의 경우 『새번역』은 『개역개정』의 “화목제물”라는 번역을 고쳐서 “속죄제물”로 번역하였다. 단어의 의미를 연구한 결과 *ἵλαστήριον*은 ‘화목’이라는 의미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속죄’라는 말을 일반적인 용례를 따라 죄의 값을 지불하여 그 값을 없애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ἵλαστήριον*을 ‘속죄’라는 단어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고대 문헌에서의 *ἵλαστήριον*의 다양한 용례들을 살펴볼 때, 이 단어의 중심 의미는 어떤 대상을 ‘덮거나 감싸는 것’에 있다. 칠십인역에서 *ἵλαστήριον*은 언약궤 덮개(출 25:17-22; 31:7; 35:12; 38:5, 7이하; 레 16:2, 13-15; 민 7:89), 번제단의 밑받침의 일부분(겔 43:14, 17, 20), 성전 기둥의 맨 위 감싸는 부분(암 9:1), 노아의 방주(창 6:16[심마쿠스역])와 같이 항상 어떤 것을 덮거나 막는(보호하는) 물건을 가리킨다. 그 외에도 그리스 세계의 종교적 맥락에서는 신에게 드러지는 어떤 물건이 신의 진노를 막는 기능을 할 때 사용된다(Cos Nr. 80; Cos Nr. 347; *Bullettino del Museo dell'Impero Romano* Nr. 11; SEG LIV 796; Lindos 2, *Inscripfen*, Nr. 425; *Tempelchronik von Lindos* B 49, Z. 48-53; Dio Chrysostomus, Or 11,121;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6.182). 로마서 3:25와 마카베오4서 17:21-22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한 인간의 죽음, 피에 관련해서 이 단어가 쓰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음과 흘린 피가 다른 사람들을 신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혹은 그들의 죄를 덮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로마서 3:25에서 바울은 *ἵλαστήριον*을 사용하여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죄를 덮는 제물’, ‘진노의 심판을 막는 제물’로 설명한다. *ἵλαστήριον*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αἷμα)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의 흘린 피가 인간의 죄를 덮는, 혹은 신의 진노를 막거나 상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예수

53) 고후 5:14-21은 롬 5:1-11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서로 상응한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였는데, 로마서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롬 8:31이하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성도들의 고난의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의 죽음 해석은 이어지는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ἀμαρτημάτων*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전승을 떠올리게 한다(고전 5:7).

*καταλλα-*어군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단어군이 *ἰλασ-*어군과는 의미적으로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새번역』에서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에 대해서 “화목”이라는 표현 대신에 “화해”라는 번역을 일관되게 사용한 것은 적합한 개선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는 단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화목이 아니라 적대적인 두 개인, 혹은 그룹 사이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의 사건을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δικαιοσύνη*가 구원 사건의 한 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 역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면을 설명한다. 그 구원의 일면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적 관계가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더 이상 죄와 불의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는 로마서 5:1의 *εἰρήνη*의 의미와도 통한다.

정리하면 바울서신에서 *ἰ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갖는 의미를 서로 다른 의미 영역에서 서술하고 있다. *ἰλαστήριον*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할,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는 그 죽음의 결과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두 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로마서 3:25의 *ἰλαστήριον*에 “속죄”와 “화목”이라는 번역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바울이 *ἰ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ή*, *καταλλάσσω*를 통해서 표현한 그리스도 죽음의 특별한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2천 년 전에 통용된, 구원에 대한 표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우리말 신약성경에서의 “속죄” 용어 사용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스어 표현
히 5: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i>ὑπὲρ ἁμαρτιῶν</i>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스어 표현
히 5:3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b>속죄제</b> 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백성을 위해서 <b>속죄의 제사</b> 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περι ἁμαρτιῶν
히 9:5	그 위에 <b>속죄소</b> 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날 날이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b>속죄판</b> 을 그 날개로 내리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τὸ ἱλαστήριον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b>속죄</b> 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b>구원</b> 을 이루셨습니다.	λύτρωσις
히 10:6	번제와 <b>속죄제</b> 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은 번제와 <b>속죄제</b> 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περι ἁμαρτίας
히 10:8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b>속죄제</b> 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b>속죄제</b> 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περι ἁμαρτίας
히 10: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b>속죄하는 제사</b> 가 없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b>속죄의 제사</b> 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περι ἁμαρτιῶν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b>화목제물</b> 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를 <b>속죄제물</b> 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ἱλαστήριο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역개정』에서는 바울서신에 해당하는 본문 어디에도 “속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히브리서에 나오는 ὑπὲρ ἁμαρτιῶν, περι ἁμαρτιῶν(혹은 ἁμαρτίας), ἱλαστήριον, λύτρωσις와 같은 다양한 그리스어 표현에 대해서 “속죄”라는 번역을 쓰고 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변화는 단연 로마서 3:25의 ἱλαστήριον을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lt;표 2&gt; 우리말 신약성경에서의 “화해(화목)” 용어 사용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스어 표현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b>화목제물</b> 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를 <b>속죄제물</b> 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ἱλαστήριον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b>화목</b> 하게 되었은즉 <b>화목</b>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b>화해</b> 하게 되었다면, <b>화해</b> 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καταλλάσσω
롬 5: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b>화목</b>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b>화해</b> 를 하게 된 것입니다.	καταλλαγή
고후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b>화목</b>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b>화목</b>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b>화해</b>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b>화해</b> 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καταλλάσσω, καταλλαγή
고후 5: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b>화목</b> 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b>화목</b>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b>화해</b> 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b>화해</b> 하게 하신 것입니다.	καταλλάσσω, καταλλαγή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스어 표현
고후 5: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b>화목</b>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b>화해</b> 하십시오.	καταλλάσσω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b>화목</b> 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b>화해</b> 시키셨습니다.	ἀποκαταλλάσσω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b>화목</b>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b>화해</b> 시켰습니다.	ἀποκαταλλάσσω
골 1: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b>화목</b> 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b>화해</b>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ἀποκαταλλάσσω
요일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b>화목제물</b> 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b>화목제물</b> 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ἱλασμός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b>화목제물</b> 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b>화목제물</b> 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ἱλασμός

『개역개정』에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의 καταλλα-어군은 “화목”이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에서는 일관되게 “화해”라는 말을 사용한다.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은 『새번역』이 요한1서 2:2와 4:10의 ἵλασμός에 대해서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번역』 성경에서 ἵλασμός와 같은 어근을 가진 로마서 3:25의 ἱλαστήριον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죄제물”로 번역한 것을 생각하면, 요한1서 2:2와 4:10의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진다. 현재 성경 번역 본문들에서 “화목”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 그룹, ἵλασ-어군과 καταλλα-어군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Keywords)

예수의 죽음, 속죄, 화해, 로마서 3:25, 힐라스테리온, 예수의 피.

Jesus' death, Atonement, Reconciliation, Expiation, Propitiation, Romans 3:25, Passover, Jesus' blood.

(투고 일자: 2020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10월 23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2020. 7. 25.).
- 김봉습, “고린도전서 1:30의 해석에 대한 소고 - 구문이해 및 바울서신의 관련 구절 분석을 중심으로 -”, 『신약논단』 26:4 (2019), 1081-1119.
- 김철홍, “성서적 신학의 주제로서의 속죄”, 장홍길 편, 『성서적 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약신학의 주요주제』,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3-240.
- 장동수, “로마서 3장 25절의 ἱλαστήριον의 의미”, 『복음과 실천』 20 (1997), 107-132.
- 장홍길, 『로마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4.
- 차정식, 『로마서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Barth, G., *Der Tod Jesu Christi im Verständnis des Neu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2.
- Bieringer, R., “2 Kor 5,19a Und Die Versöhnung der Welt”,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63 (1987), 295-326.
- Breytenbach, C., “Versöhnung, Stellvertretung und Sühne: Semantische und traditionsgeschichtliche Bemerkungen am Beispiel der paulinischen Briefe”, *New Testament Studies* 39 (1993), 59-79.
- Breytenbach, C., *Versöhnung: Eine Studie zur paulinischen Soteriologie* (WMANT 6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 Breytenbach, C., “‘Taufen’ als Metapher in den Briefen des Paulus, Randbemerkungen zur Wendung βαπτισθῆναι εἰς τι/τινα”, J. Flebbe and M. Konrad, hrsg., *Ethos und Theologie im Neuen Testament: Festschrift für Michael Wolt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16, 263-288.
- Bultmann, 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2.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 Deißmann, A., “ἸΛΑΣΤΗΡΙΟΣ und ἸΛΑΣΤΗΡΙΟΝ: Eine Lexikalische Studie”,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4 (1903), 193-212.
- Eschner, C., *Gestorben und hingegeben „für“ die Sünder, Bd. 1: Auslegung der paulinischen Formulierung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 Fitzmyer, J. A., “Reconciliation in Pauline Theology”, John L. McKenzie, James W. Flanagan, and Anita Weisbrod Robinson, eds., *No Famine in the Land: Studies in honor of John L. McKenzie*, Claremont: Montana Scholar Press, 1975.
- Fitzmyer, J.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 York: Doubleday, 1993.
- Flebbe, J., *Solus Deus: Untersuchungen zur Rede von Gott im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Berlin: De Gruyter, 2010.
- Furnish, V. P., *2 Corinthians* (The Anchor Yale Bible Commenta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5.
- Gaukesbrink, M., *Die Sühnetradition bei Paulus: Rezeption und Theologischer Stellenwert*, Würzburg: Echter, 1999.
- Goppelt, L., “Versöhnung durch Christus”, *Christologie und Ethi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147-164.
- Haacker, K., *Der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Theologischer Hand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 Harris, M. J.,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3.
- Hofius, O., “Erwägungen Zur Gestalt und Herkunft des paulinischen Versöhnungsgedankens”,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77 (1980), 186-199.
- Hultgren, A. J.,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1.
- Hübner, H., Sühne und Versöhnung. Anmerkungen zu einem umstrittenen Kapitel Biblischer Theologie, Antje Labahn, Michael Labahn hrsg., *Biblische Theologie als Hermeneuti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110-131.
- Janowski, B., *Sühne als Heilsgeschehen: Tradi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Studien zur Sühnetheologie der Priesterschrift* (WMANT 5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Jewett, R., *Romans: A commentary*, Edinburgh: Fortress, 2007.
- Käsemann, E., *An die Römer* (Handbuch zum Neuen Testament), Tübingen: Mohr Siebeck, 1980.
- Knöppler, T., *Sühne im Neuen Testament: Studien zum urchristlichen Verständnis der Heilsbedeutung des Todes Jesu*, Neukirchen-Vluyn: Neukirchener-Verlag, 2001.
- Kraus, W., *Der Tod Jesu als Heiligtumsweihe: Eine Untersuchung zum Umfeld der Sühnevorstellung in Römer 3,25 – 26a* (WMANT 6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 Lohse, E., *Märtyrer und Gottesknecht: Untersuchungen zur urchristlichen Verkündigung vom Sühntod Jesu Christi* (Forschungen zur Religion und

- Literatur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4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5.
- Lohse, E., *Der Brief an die Römer* (Kritisch-exegetischer Kommentar über das Neue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 Manson, T. W., “‘ΙΛΑΣΤΗΡΙΟΝ’”,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46 (1945), 1-10.
- Marshall, I. H.,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Robert A. Guelich, ed., *Unity and Diversity in New Testament Theology: Essay in Honor of George E. Ladd*, Grand Rapids: Eerdmans, 1978, 117-132.
- Moo, D., *The Letter to the Romans* (NIC),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8.
- Morris, L., “Meaning of ἰλαστήριον in Romans 3:25”, *New Testament Studies* 2 (1955), 33-43.
- Roloff, J., “ἰλαστήριον”,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hrsg., *EWNT*, Stuttgart: Kohlhammer, 2011, 455-457.
- Schmeller, T.,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10.
- Schnelle, U., *Paulus: Leben und Denken*, Berlin, Boston: De Gruyter, 2014.
- Schrage, W., “Römer 3, 21-26 und die Bedeutung des Todes Jesu Christi”, P. Rieger, hrsg., *Das Kreuz Jesu*,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65-88.
- Schreiber, S., “Das Weihegeschenk Gottes: Eine Deutung des Todes Jesu in Röm 3,25”,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97 (2006), 88-110.
- Schröter, J., “Sühne, Stellvertretung und Opfer”, Jörg Frey und Jens Schröter, hrsg., *Deutungen des Todes Jesu im Neuen Testament*, Tübingen: Mohr Siebeck, 2005, 51-72.
- Schleiermacher, F., *Allgemeine Hermeneutik* (1809.10. 강역), Schleiermacher-Archiv 1/2 (Berlin: De Gruyter, 1985), 1217-1310.
- Stuhlmacher, P.,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Schumacher, T., *Zur Entstehung christlicher Sprache: Eine Untersuchung der paulinischen Idiomatik und der Verwendung des Begriffes πίστις*,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 Weiß, A., “Christus Jesus als Weihegeschenk oder Sühnemal?”,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5:2 (2014), 294-302.
- Wengst, K., *Christologische Formeln und Lieder des Urchristentums* (Studien zum Neuen Testament), Gütersloh: Mohn, 1973.

Wilckens, U., *Der Brief an die Römer 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7.

Wolter, M., *Paulus. Ein Grundriss seiner Theolog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1.

Wolter, M., *Der Brief an die Römer 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4.

Zeller, D., “Gottes Gerechtigkeit und die Sühne im Blut Christi: Neuerlicher Versuch zu Röm 3,21-26”, Josef Hainz, hrsg., *Unterwegs mit Paulus*, Regensburg: Pustet, 2006, 57-69.

<Abstract>

**A Critical Study of the Terms ‘Sokjoe’ and ‘Hwahae’  
in the Pauline Epistl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oblem of Interpretating  
ἵλαστήριον and καταλλαγή**

Seo-Jun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 terms ‘sokjoe’ and ‘hwahae’ (‘hwamok’) used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particularly in Paul’s epistles. It first investigates the meanings of the Greek expressions behind ‘sokjoe’ and ‘hwahae’ (‘hwamok’), namely ἵλαστήριον, καταλλαγή, and καταλλάσσω, in light of their usage in various ancient writings available in Paul’s time.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it examines the theological meanings of those terms in Paul’s epistles to reconsider the validity of their Korean translations.

With regard to the Korean translations of ἵλαστήριον in Rom 3:25, neither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KRIV) nor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RNKSV) provides precise translation. A survey of the use of ἵλαστήριον in the Septuagint reveals that its central meaning is *to cover, close, or wrap*. It can also mean *block or countervail*. In the Septuagint, it refers to various objects that cover or wrap (Exo 25:17-22; 31:7; 35:12; 38:5,7 ff; Lev 16:2,13-15; Num 7:89; Eze 43:14,17,20; [Symmachus] Gen 6:16; Amo 9:1). In the context of Hellenistic religions, it refers to an object that functions to block divine wrath (*Cos* Nr. 80; *Cos* Nr. 347; *Bullettino del Museo dell’Impero Romano* Nr. 11) ; *SEG* LIV 796; *Lindos 2. Inschriften*, Nr. 425; *Tempelchronik von Lindos* B 49, Z. 48-50; Dio Chrysostomus, *Or* 11,121; Josephus, *Ant*, 16.182). In Rom 3:25 and 4 Maccabees 17:21-22, the same word is used in relation to the blood and the death of a person, which function to cover the sins of sinners and block God’s wrath. When Paul in Rom 3:25 mentions Jesus’ blood while presenting Jesus as ἵλαστήριον put forward by God, this word conveys the meaning of Christ’s death, namely that the blood shed by Christ is able to cover human sins or block/countervail divine wrath.

A survey of the καταλλα-word group shows that i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ἰλασ-word group, and that it basically signifies the restoration of peace by ending hostility, namely reconciliation (‘hwahae’) rather than simply warm relationship among members (‘hwamok’). Paul uses καταλλαγή and καταλλάσσω to refer to the event of reconciliation between God and man through Christ Jesus. Just as δικαιοσύνη, frequently used by Paul, describes one aspect of salvation, καταλλαγή and καταλλάσσω also describe another aspect of salvation that God achieved through his Son, Jesus, namely that God resolved hostility between God and humanity through his Son, and that there is therefore no need to fear God’s wrathful judgment on sin and injustice.

In summary, ἰλαστήριον, καταλλαγή, and καταλλάσσω in the Pauline epistles describe different aspects of the meaning of Jesus Christ’s death on the cross. While ἰλαστήριον directly communicates the role and the meaning of Christ’s death, καταλλαγή and καταλλάσσω refer to an event that results from his death. In view of this clear semantic distinction between ἰλαστήριον and καταλλαγή / καταλλάσσω, we are thus not justified to conflate the meanings of these two words, and use both ‘sokjoe’ and ‘hwamok’ for the translation of ἰλαστήριον. Furthermore, we need to remember the particular meanings of Christ’s death expressed by Paul’s specific choice of the words, ἰλαστήριον, καταλλαγή, and καταλλάσσω. It is by understanding these meanings clearly that we can come closer to the original representation of salvation that Paul communicated two thousand years ago.